

##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



업분야의 국제적 정세는 글로벌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으며 다기능적 농업과 로컬푸드<sup>①</sup>가 중요시되고 있다.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해외시장 개방에 따른 공급능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(散在)해 있다. 즉 고령화, 시장개방, 생산기반 약화 등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타계(他系)할 농업과 과학을 접목한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가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. 저에너지, 고생산 농업 시스템 구축 및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작 자동화를 골자로 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며,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에 농업을 포함하여 농작물, 축산물 생육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진행한다.



현재 식량자급율의 태산복두인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은 150%를 넘어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3.6%로 쌀을 제외하면 5% 미만이라고 한다. 이에 정부는 귀농을 독려하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, 특화 상품 개발, 식품화와 연계한 푸드밸리 구축 등 민간과 협력하여 농촌의 시스템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 최근 농촌의 활성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ICT 연계를 통해 농촌의 시스템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

### ◆ 사례보고

#### 가) 해외 사례

- (a) 브라질의 식품공공조달 프로그램
- (b) 네덜란드의 TransForum 프로젝트
- (c) EU의 Foodlinks 프로젝트

#### 나) 국내 사례

- (a)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시스템 도입
- (b) 귀농 창업 및 현장실습지원사업
- (c) 문경시의 글로컬 푸드밸리 구축

### ※ 귀농귀촌 멘토링 서비스

구분	멘티	멘토
자격	초보농업인	선도 농업인, 농업관련 전문가
	귀농귀촌 준비자	경영/마케팅/지역개발 전문가
신청	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	
	농업기술센터 혹은 자치단체의 귀농담당자에게 신청	
지원	실질적 기술, 필요 정보 습득	정착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 교육/정보 제공

① 지역농산물로 소비자와의 이동 거리가 대략 50킬로미터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